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라.
악한 말은 자신과 남에게 해를 입힌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16일)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한계봉착 디지털 교육 '온·오프 소통' 활로를

[현안 진단] 조계종 온라인 교육 현황과 발전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이 2012년 야심차게 출범한 조계종 디지털대학이 '졸업자 급감'이란 문제를 드러낸 가운데,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포교·신도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디지털대학(운영위원장 가섭)은 10월 18일 서울 조계종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조계종 디지털대학 발전방향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운영위원장 가섭 스님을 비롯해 양흥식 교학처장, 윤기중 포교사단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해 조계종 디지털대학 활성화 및 온라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계종 종단 차원의 불교 온라인 교육은 1996년 조계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행정 전산화와 함께 간단한 교리 내용을 넣으며 시작됐다. 2006년 조계종 포교원이 사이버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이후 포교사단의 포교사 대학원과 통합, 2012년 디지털불교대학으로 명명하며 본격적인 불교 온라인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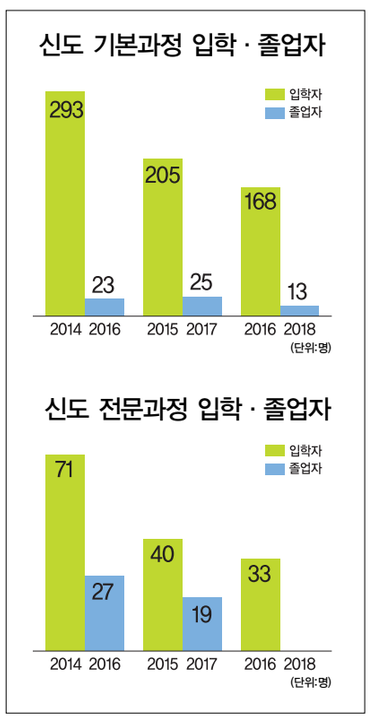
입학 비해 현격히 적은 졸업자

조계종 디지털대학 현황을 보면 불교 온라인 교육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난다.

2년제인 조계종 디지털대학의 과정별 이수자 현황을 보면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의 졸업자 급감이 눈길을 끈다. 신도 기본과정 입학자는 2012년 179명, 2013년 178명, 2014년 293명, 2015년 205명, 2016년 168명, 2017년 208명, 2018년 117명 등이었으나 졸업자는 2014년 79명, 2015년 30명, 2016년 23명, 2017년 25명, 2018년 13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신도기본과정 이수자가 밟는 신도전문과정 입학자 또한 기본과정 졸업자 감소로 2014년 71명, 2015년 40명, 2016년 33명, 2017년 30명, 2018년 32명 등 감소 추세이며, 신도전문과정의 졸업자도 2014년 65명에서 2015년 30명, 2016년 27명, 2017년 19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중도 이탈자에 대해 디지털대학 측은 △2016년 이전 제작된 콘텐츠가 대부분인 콘텐츠의 질적 낙후 △교리중심 신도기본과정과 현장중심 전문과정의 연계성 부족 △재적사찰의 오프라인 교육과의 충돌로 중도파기 발생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디지털대 졸업자 급감
기본졸업 79명→13명

중도이탈 주요원인으로
'소통·실천 부족' 꼽혀

지역사찰과 MOU 필요
네트웍·현장 콘텐츠 개발

상담, 실참 등 온라인 한계 드러나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론교육과 지도, 실천의 병행이란 불교교육 중 지도 및 실천 부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날 '온라인 불교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발제를 맡은 前포교원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불교에서는 불교사상을 체화하는 과정을 '문사수(聞思修) 3혜(慧)'로 설명한다. 문은 듣거나 보거나 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 사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과정, 수는 그 정보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종단의 온라인교육은 '수(修)'에서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원묵 스님은 "사찰에서의 불교대학 교육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스님이나 강사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고 수행지도, 현장실천 또한 바로 이뤄진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이런 기회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흥식 디지털대학 교학처장은 "수강생이 신도기본·전문과정으로 연계될 때 재적사찰이 없는 경우 사찰로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디지털대학과 지역별 사찰 MOU를 확대하고, 포교사단 지역단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과제를 밝혔다.

이어 양 교학처장은 "포교콘텐츠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며, 온오프 연계를 위한 사찰 동참에서는 사찰별 맞춤형 주지 스님 법문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교육과정에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온-오프 연계 콘텐츠 · 사찰 동참을

여기에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포교신행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했다. 윤 단장은 "신행단체, 포교사 등과 논의해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는 강의 개발이 필요하며, 포교 토크 등 분야별 토론, 소통형 강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하는 민간자격증도 더욱 확대해 동기부여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욱 스님은 "디지털대학의 강의 내용도 디지털 대학뿐만이 아니라 5~10분으로 편집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일부 공개해 평가, 반영하고 주요 교육대상인 3~40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늘려야 한다. 종단 온라인 교육의 상징인 디지털 대학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CI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조계종 디지털 대학은 그동안 불자들 중 전법 포교인력을 양성하고, 일반인들이 불교를 알아가는 교육기관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기능과 함께 신행 포교의 네트워크 속에 함께 자리한 사이버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심이 그려낸 부처님 세상 동심의 눈으로 바라본 부처님 얼굴이 도화지마다 담겼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0월 18일 조계사 앞마당서 제11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 '맑고 밝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을 개최했다. 이날 복지재단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아 400여 명이 모여 그림 솜씨를 뽐냈다. 특히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경내를 돌며 석탑, 불상 등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린 어린이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격려했다. 사진은 대회에 참여한 원아들이 직접 그린 부처님 그림을 들어 보이는 모습. 글=김지원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작지만 강한 승가결사체 '전법행'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가결사체 활발

청소년·환경 등 다방면 활동
현장-종단 지원 시스템 구축
내년 승가결사체 공모 진행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올해 처음 실시한 승가결사체 제도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승가결사체는 일종의 전법을 위한 스님들의 소모임으로 조계종 교육원이 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을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마련됐다. 교육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가결사체 인증 공모를 했고, 심사를 거쳐 20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활동 기금을 종단에 지원받으며 현재 활동을 전개 중이다.

승가결사체 안양계(安養界)는 대표 재마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과 경찰병원 지도법사 무관 스님, 사회복지사 지선 스님, 중앙승가대 학인 청하 스님, 속리산 탈골암 성윤 스님 등을 주축으로 청소년 교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불교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정심정보산업학교 정기법회 및 수계식, 예술 매체와 접목한 명상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 중이다.

또한 10월 26일, 11월 2일, 11월 10일 세 차례 걸쳐 교정교화 봉사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시대의 언어를 통해 불교를 재미있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승가결사체도 있다. '세상을 알다. 세상과 소통하다'를 기치로 설립된 승가결사체 '세간해연구소'는 시대 언어와 방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고 있다. 결사체에는 혜장 스님을 비롯해 견명·도문·성민 스님이 참여 중이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서울 삼보사에서 '화통: 꽃으로 통해요, 숨통: 호흡으로 통해요, 맘통: 마음으로 통해요(이하 통·통·통)'를 진행했다.

세간해연구소의 '통·통·통' 프로그램은 〈화엄경〉의 용궁전래설을 바탕으로 한다. 바다 속 용궁을 모티브로 한 촛불(candle)을 만들어 촛불 명상과 호흡체험을 통해 자존감 향상을 추진하는 게 주요한 목표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청소년 참가자인 이지원 양은 "맘통 프로그램의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법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며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제일 쑥쓰러웠지만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세간해연구소 대표 혜장 스님은 "맘통은 우리의 마음이자, 엄마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다양한 화엄놀이를 통해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원은 이 같은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원 연수국장 무일 스님은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했던 스님들을 승가결사체를 통해 연수교육 인증과 지원으로 연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0% 증가한 단체를 선발해 연수인증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원에서는 승가결사체들이 임의단체를 넘어 향후 더 확대된 조직으로 성장해나가는 인큐베이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승가결사체들도 교육원의 연수인증과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한 단체로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혹은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얀마 7일 (특급호텔)
1팀 2018년 11월 10일 229만원
2팀 2018년 12월 10일 239만원
3팀 2019년 01월 10일 249만원

스리랑카 8일,
스리랑카&몰디브 10일
스리랑카 8일 2018년 12월 10일 239만원
스리랑카 8일 2019년 01월 09일 259만원
순례 및 몰디브 2019년 01월 09일 39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7대성지 11일 2018년 11월 11일 249만원
7대성지 10일 2019년 01월 10일 249만원

▶ 비자비용, 기사/가이드팁 포함 ▶ No옵션, No쇼핑 ▶ 특급호텔 사용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확정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02-720-9600
홈페이지 maumtour.com